김상득
본회 회원, 철학박사, 연세대 강사

생명의료윤리학(5): 인간복제의 윤리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7, 28)

I. 들어가는 말

욕심 많고 자기 밖에 모르는 노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노인이 집에 와 보니 자기와 똑같은 노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자기 자식과 머슴,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구박하며 내쫓자 이 노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어 다시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는 옹고집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권선징악을 위해 지어낸 하나의 설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설화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

로 우리의 이야기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금세기 초에 헉슬리가 그린 「멋진 신세계」가 꿈이 아니라 현실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1997년 2월 23일 영국의 에딘버러에 있는 로슬린연구소의 아이언 윌머트박사가 6년 된 암양으로부터 체취한 체세포로부터 핵이식 복제술에 통해 새로운 양 돌리를 생산해 냈기 때문이다.

이를 과학이 이룬 장미빛 미래로 보고 춤을 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 파멸의 시작으로 보고 곡을 해야 하는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멋진 신세계」가 출간될 때에는 유전공학이 설마 여기에 이르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인간과 동물이 포유동물로서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할 경우, 마음만 먹으면 현재 상태에서도 기술적으로는 인간의 복제도 가능하다고 유전공학자들은 말하고 있다.[1] 이미 27년 전 1970년 올챙이 복제에 성공한 바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송아지 복제에 성공하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이번의 돌리양 탄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복제를 비롯하여 생명체 복제에 대한 윤리성 논쟁이 철학자, 과학자 및 종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인간의 복제를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 복제술에 대해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또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어떤 근거에서인가? 적어도 성경을 진리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윤리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참된 잣대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물음의 답을 성경에서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인간 복제를 가능케 하는 동물 복제술의 정체를 정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섣부른 판단은 근거없는 주관적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돌리를 가능케 한 동물 복제술을 논한 다음, 동물체

1) 「조선일보」, 1997년 3월 7일, "「복제인간 시대」 오는가".

복제가 함의하고 있는 물음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답변을 모색할 것이다.

II. 동물 복제술

동물체의 복제란 인위적 조작과정을 통하여 표현형(외모)과 유전형질이 동일한 복수의 동물을 생산하는 세포 및 발생공학 기술을 총칭한다. 그러므로 자연발생적인 일란성 쌍태아는 이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 복제술은 학자에 따라 공여핵(Doner nuclei)의 근원에 따라 광의로 배자 복제(Embryo cloning)를 포함하기도 하며, 협의로는 성체세포 복제로 한정하기도 한다. 만일 동물 복제의 정의를 성체세포 복제로 국한한다면 금번 윌머트박사가 개가를 올린 돌리가 유일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세포를 공여핵으로 이용하든지 그 과정은 거의 동일하며, 복제된 배자(Cloned embryo)를 대리모에 이식하여 복제 동물이 탄생된다는 의미에서 배자 복제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1]

동물 복제술은 복제할 원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크게 생식세포 복제술과 체세포 복제술로 나눌 수 있다. 생식세포 복제술은 부화(hatching) 이전 단계의 배자를 예리한 절단 기구를 이용하여 양분 또는 사분한 후 각각 여분의 투명대에 넣고 배양과정을 거쳐 대리모에 이식하거나 혹은 2-8개 세포로 분화한 초기 배아에서 투명대를 절개한 후 할구(blastomere)를 분리해 내 일정 기간 배양하여 대리모에 이식시켜 동일한 유전형질을 지닌 동물을 복제해 내는 기술을 말한다. 자연적인 임신의 경우,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을 이루고 이것이 2, 4, 8, 16, 32개 세포로 분열하는데, 이 각각의 세포가 암컷에 착상되면 하나의 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체외 수정시킨 수정란을 세포 분열 이전에 인위적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분열된 세포를 인위적으로 나눈 후 그 배자를 대리

1) 황우석, "생명복제술의 현황 및 전망", 「기독교사상」 463호(1997년 7월호), 41쪽.

모에 착상시키는 기술이 바로 생식세포 복제술이다. 이러한 생식세포 복제술은 이미 1993년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의료원의 로버트 스틸먼 박사와 제리 홀 박사에 의해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성공한 바 있다.[1] 하지만 배자 복제 단계에 머물렀지 그 배자를 여자의 자궁에 이식시키지는 않아, 복제된 인간이 탄생한 것이 아니다.

동물체는 난자, 정자, 및 이들의 결합체인 배자 등의 생식세포뿐만 아니라 체세포도 지닌다. 생식세포 단계에서는 유전정보를 지닌 핵이 신체의 어느 기관이나 조직으로도 분화가 가능하지만, 체세포는 이미 그 분화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에 체세포로부터는 새로운 개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세포분화이론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이 상식을 뒤엎은 것이 바로 돌리의 탄생이다. 윌머트박사팀은 체세포핵 내 DNA 속에서 완벽한 개체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 기술을 우리는 체세포 복제술이라 부를 수 있다. 돌리의 탄생을 예로 들어 이 기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년된 암양 A의 세포를 채취하여 핵을 분리해 내고, 세포질을 공여하는 암양 B로부터 난자를 회수하여 핵을 제거한 후, A의 핵을 B의 난자에 이식시켜 제 3의 대리모인 암양 C에게 이식시켜 A와 유전형질이 동일한 암양을 생산하게 된다. 생식세포 복제술과는 달리 체세포 복제술에서는 핵을 이식시키는 것이 본질적이기에 이를 핵이식 복제술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핵이식 복제술은 난자와 정자의 수정없이도 개체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성생식 혹은 단성생식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생식세포 복제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동물 복제술로부터 우리는 복제가 지닌 몇 가지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그 첫째는, 이미 체외수정에서도 일어난 일이지만, 생명체의 탄생을 인간이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무성생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동일한 유전형질을 지닌 개체를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지닌 개체가 아니라

1) 「시사저널」, 212호(1993년 11월 18일), 82쪽.

핵 제공자와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개체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III. 인간 복제에 관한 철학적 · 윤리적 물음들

이제는 동물 복제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킬 경우 어떤 윤리적 함축을 지니는지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동물 복제술이 지닌 4가지 특징을 뒤에서부터 살펴보자. 복제란 본디의 것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기에 우생학적 물음이 제기된다. 근친상간이나 근친혼을 금하는 것은 문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이유에서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근친간에 태어난 자식은 열성 형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에 잘 걸린다.[1] 그런데 복제된 인간은 동일한 유전형질을 물려받기 때문에 생물학에서 말하는 잡종강세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복제술이 악용될 경우에는 우생학적으로 특정 질병에 허약한 혹은 특정 정신이 약한 인간을 만들어 내어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열성인자를 지닌 인간을 사회에서 제거해 버리는 우생학적인 인종청소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특히 과학자들의 연구가 권력과 자본의 논리와 결합되면 이런 현상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문제점뿐 아니라 철학적으로는 복제된 인간의 지위 물음이 제기된다. 즉, 복제된 인간은 핵 제공자와 유전형질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 인간은 핵 제공자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부모-자식의 관계가 성립되는가? 아니면 단순히 핵제공자의 변형에 불과한가? 자식으로 인정한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런 복제된 인간은 부나 모 한쪽만 있게 된다. 부모 중 한쪽만 지닌 자녀의 양산은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즉, 인간 복제가 현실화될 경우 남녀간의 성적 결합에

---

1) 일본 대마도의 어느 지방에서는 사촌간의 결혼이 많으며 이상하게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신이상자가 많은데, 그 지역 주민들도 근친혼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미국 뉴욕의 어느 지역에도 근친혼이 행해지기 때문에 바보 천치가 많이 태어난다고 한다. "좌담:생명복제 기술과 인류의 미래", 「과학사상」 제 22호(1997년 가을), 34-35쪽 참조.

근거를 둔 가족개념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며 친족개념 또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하여 친자와 직계존비속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재산권의 분할 및 상속권 개념에도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1]

둘째, 동일한 유전형질을 지닌 인간이 수없이 많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곧 개체성의 위기를 낳는다. 여기에는 한 인간의 개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물음이 깔려 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한 인간의 개체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와 한 인간이 자라온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복제된 인간은 원칙적으로 유전인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개체성의 형성에 유전형질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박사는 "복제 동물은 어미(세포를 제공한 동물)의 표현 형질(외모)은 꼭 빼닮겠지만 유전형질은 1백%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복제 동물의 유전형질은 성장과정이나 환경에 따라 다소 변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동물의 경우 이 점이 확인되었다고 한다.[2] 사람은 환경에 따라 성격이나 특정 능력의 발현 등에서 더 큰 편차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일란성 쌍둥이들도 성격 형질은 절반 정도만 공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3] 이런 의미에서 보면 돌리 암양은 개체발생은 됐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복제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서울의대 황상익박사는 인간의 복제가 한 생명체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4]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유전자만능론'이나 '유전자결정론'에 빠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개체성은 유전자에 의해 결

1) 신인호, "법률적 측면에서 본 인간복제", 「인간복제에 관한 심포지엄 자료집」(서울:서울중앙병원, 1997), 참조.

2) 「조선일보」, 1997년 3월 7일.

3) 쌍둥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쌍둥이들은 성장과정이야 어떻든 기본 성격상 똑같은 특색이 있다고 한다. 미네소타대의 연구에서 따로 자란 350쌍의 일란성 쌍둥이들이 여러 신체적·심리적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지도력·상상력, 스트레스·소외에 대한 취약성 등의 특성들은 타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공격성·성취욕·질서의식·사교성 등과 같은 그 밖의 특성 가운데 상당수는 성장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뉴스위크한국판」 102호(1993년 11월 10일), 16쪽.

4) 황상익, "생명체 복제와 생명윤리", 「기독교사상」 통권 463호, 59쪽

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시간성과 공간성, 즉 역사적 현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모가 똑같고 성(gender)이 같으며, 상당 부분의 성격이 같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 개인의 독자성이 상당히 약화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독자성 상실은 개인의 자아정체성 위기로 이어진다. 어느 날 남대문 시장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과 마주친다면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 아마 "나란 누구인가?"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의 자아정체성 물음을 제기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제된 인간으로서의 '나'는 나를 복제한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목적적 존재로서의 나는 없어지고, 부모의 바람에 의해 내가 태어났다는 의식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감신대 박충구교수는 "복제된 인간은 복제하는 인간의 비인간성의 산물이며, 복제된 인간과 복제하는 인간과의 평등성은 실현될 수 없는 가치로 전락한다."고 비난한다.[1] 이는 인간 정체성의 혼란뿐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인간 소외를 낳을 것이다.[2]

또한 동일한 개체의 다수 존재는 다양성의 상실을 가져온다. 미네소타대학 생명윤리학 센타 소장인 카플란 박사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 개개인의 독자성과 고유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위에 쌍둥이도 있고 세 쌍둥이도 있지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다. 무슨 물건이든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생기면 원래의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한다.[3]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지니기에, 인간의 복제를 시장 경제의 윤리와 자율성 원칙에 맡겨 미래의 세대를 만들어 낸다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무성생식이 가능해져 인간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불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누구나 - 결혼을 하였든지 미혼이든지 상관없이 - 자기 피(?)가 섞인 자녀를, 아니 자기와 유전인자가 똑

1) 박충구, "생명복제와 인간성 위기", 「기독교사상」 463호(1997년 7월호), 78쪽.
2) 김영진, "윤리적 차원에서 본 인간복제", 「인간복제에 관한 심포지엄」, 6-7쪽.
3) 「시사저널」 212호, 83쪽.

같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남녀의 성기능 구분의 의미가 없어진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죽은 후 즉각 냉동시키거나 아니면 그에게서 생전에 체세포를 적출해 놓을 경우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고 한다.[1] 우리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래서 죽은 애인이나 자식을 되살려내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젠가는 자기 딸을 유산시키고 그 태아에서 손자(한 세대를 건너 뛴)를 보게 되거나 또는 태어난 일도 없는 이름모를 태아의 아기를 낳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이 역시 전통적인 가족관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간 복제를 '천부적 인권파괴' '인간의 종말'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도 있다.[2]

게다가 앞으로는 사람들이 자아실현과 인생계획에 따라 출산의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이가 들며 남자나 여자 공히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기에는 부적합한 시기가 오고, 나이가 들어 출산할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젊었을 때 체외수정을 통한 수정란을 냉동은행에 보관했다가 임의로 이식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회갑이 지난 다음에도 자신의 체세포를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기다렸다 아기를 낳아 아이 키우는 재미로 노후를 보낼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 같은 날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시간적 차이를 지닌 일란성 쌍둥이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인간 복제술이 발달하면, 인생의 과정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고 미네소타대 생의학윤리센타 소장 아더 캐플런은 말한다.[3]

넷째, 하나의 신비로 가려진 있던 생명의 탄생 과정이 밝혀지고 이를 인간이 조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상소설에서나 나오는 일들이 현실화 가능하게 되었다.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는 돌리에 이어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를 탄생시켰으며, 미국 과학자들은 양-쥐-토끼의 기관, 방광, 콩팥, 다

1) 「조선일보」 1997년 3월 1일.
2) 진교훈, "생명조작과 인간복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과학사상」 제22호, 86쪽.
3) 「뉴스위크한국판」 112호(1994년 1월 26일), 48쪽.

리 근육 등을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1] 이로서 조만간에 인체 부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심지어는 이미 태어난 자녀가 치유불가능한 심장병에 걸릴 경우, 이식용 심장을 얻기 위해 새로운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동물을 의약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공장으로 생각하는 동물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분야가 대두되었듯이, 인간을 다른 인간을 위한 장기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는 호모리액터(homoreactor)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배후에는 인간은 그 정자나 난자 혹은 수정란에 대한 재산권을 지닌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재산권은 처분권을 함축한다. 자기 신체 혹은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처분권의 인정은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더군다나 무성생식된 배아나 생식세포 복제술로 복제된 배아에 대해서도 이러한 처분권을 인정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복제된 배아는 엄밀히 말해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두 개체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임신·출산한 아이가 밀림에서 늑대에 의해 양육될 경우 그 아이는 인간의 형체는 지녔으나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유전공학이 발달하여, 인간 배아를 인간이 아닌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인공 자궁에 착상시켜 얻어지는 아이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기를 경우는 어떠한가? 이렇게 태어난 개체도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지니는가? 이러한 기술이 자본의 논리와 결합되면, 이미 아기를 갖는 시기, 아기의 성, 인종, 유전형질 등의 선택이 모두 가능한 '주문형 인간'을 생산하는 인간 공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술의 발달은 결국 인간존엄성의 근거가 무엇이냐, 아니 근본적으로 인간이 무엇이냐의 물음을 낳을 것이다. 특히 과학자의 실수로 불량품 인간이 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렇게 태어난 인간 역시, 기형아가 인간이듯이,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지니기에 물건처럼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지 않는가?

---

1) 「조선일보」, 1997년 7월 25일.

IV. 생명 복제에 관한 성경적 입장

생식세포 복제술이 발표되자 위스콘신 대학 윤리학 교수 노먼 포스트박사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자유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기를 만들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자기 수정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고유한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한 바 있다.[1] 반면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를 두고 "광기의 터널로 뛰어드는 과학자"라고 비난한 바 있는데[2], 이번에 돌리 소식이 전해지자 교황청 신학자 지노 콘세티는 "유전자 조작 등의 실험으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신의 창조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결혼의 숭고함을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역시 인간 복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3] 기독교 신학자들 역시 생명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의 파괴를 이유로 들어 인간의 복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인간 이외의 동물 복제에 대해서는 실용성을 이유로 찬성하지만,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비윤리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4]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숨어있던 법칙을 발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즉, 미분화된 세포인 수정란이 분열하여 피부세포, 간세포, 폐세포 등으로 분화하는데, 이를 거꾸로 되돌린다는 것은 식물에게서는 가능하나 동물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왔는데 체세포 복제술로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인간 지식의 새 지평을 여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 발견이란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 그것을 실행에 옮겨 인간을 복제하는 일은 또다른 신앙적 문제를 불러일으킴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학자는 할 수만

---

1) 「사사저널」, 212호(1993년 11월 18일), 83쪽.
2) 「뉴스위크한국판」 102호 (1993년 11월 10일) 15쪽.
3) 「조선일보」, 1997년 2월 26일.
4) 1993년 휼 교수의 배자 복제 실험이 발표된 직후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한 「타임」지의 설문조사를 보면, 인간복제를 긍정하는 이들이 14%, 부정하는 이들이 75%이었으며, 58%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박충구,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서울:성서연구사, 1995), 262쪽 참조.

있으면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나, 윤리적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로 인해 성경의 신비가 과학적인 설명으로 대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이브 창조는 체세포 복제술로 설명이 가능하다. 아니 어쩌면 이브가 복제된 인간 1호인지도 모른다.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도 체외수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성경의 하나님 역사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손수 체외수정이나 인간복제술을 행사하였다면, 이러한 의술 행위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사실 성경에는 인간의 복제는 물론이거니와 동물의 복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우리는 인간의 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 물음들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을 찾아내어 그로부터 인간 복제에 대한 입장을 유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 복제는 기독교인에게 어떤 기독교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간 복제술은 인간 생명의 탄생을 인간이 좌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명의 탄생에 인간이 관여할 권리를 지니는가의 물음이 첫째 문제로 제기된다. 결국 이 물음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의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한 것을 인간이 모두 해도 좋다는 그릇된 입장은 경계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는 자요, 인간은 비록 자연의 관리자요 청지기이지만 어디까지나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관리인이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 생명의 창조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한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인류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은 동시에 각 개인의 창조

자라는 신앙을 우리는 시편 139편과 욥기 10장에서 읽을 수 있다(표준새번역).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시 139:13)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시 139:16)

"주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 · · 주께서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욥 10:8,9)

개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자기 고백적인 신앙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른 인간을 복제할 권리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린 것은 그의 통증을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창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행위에 사람은 관여할 수도, 참관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1]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복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학기술의 도전장이며,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 스스로 인간을 만들어보겠다는 20세기의 바벨탑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뿐 아니라 생명체의 창조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신학자들은 동물의 복제는 식량생산, 생물약제 생산, 이식 및 연구용 장기 제공, 질병 치료 등의 이유를 들어, 즉 인간의 실용성을 이유로 들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엄밀한 의미의 창조신앙에 따르면 이 역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수 생명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시고 관리하도록 유임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정복하다' '다스리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의 어려움에 부딪힌다.

---

1) 차준희, "인간복제에 대한 구약성서적 평가", 「기독교사상」 463호(1997년 7월), 18쪽.

그래서 두번째 물음에로 나아간다. 즉, 인간의 복제를 포함한 동물의 복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지 않는가? 창조질서는 자연적인 종의 질서의 보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이 의미하는 창조질서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보존을 의미한다.[1] 창조질서는 창조시 인간이 부여받은 질서를 지키는 것, 곧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며, 자연에 대해서 책임적 위치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인간이 맺고 있는 세 가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창조질서의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기에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질서의 근본 원칙이다. 둘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목적적 존재로 대우하고 각자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에 따라 자연과 피조물을 돌보아야 한다.

창조질서의 처음 두 원리는 인간의 복제를 금한다. 그런데 세 번째 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물의 복제의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대체로 기독교 신앙은 자연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혀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신에 기독교 창조신앙은 자연질서를 건강한 방향으로 변혁시키는 데 공헌해야 한다고 한다.[2] 동물 복제에 찬성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러한 창조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신앙에 대한 이런 해석은 개념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건강한 방향'이란 개념의 모호성이 바로 그것이다. '건강한'이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건강한'이라고 물을 수 있다. '자연에 건강한 방향으로'라고 신학자들은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에서 보아 자연에게 건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건강한 방향'이란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속에는 암묵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방

1) 장경철, "생명복제와 창조주 주권의 문제", 「기독교사상」 463호(1997년 7월), 24쪽.
2) 장경철, 위의 논문, 25쪽.

향'이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자연이 최선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아 건강한 것이 자연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일 유전자 복제 생물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복제된 동물은 거의 같은 유전형질을 지닐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특정한 바이러스나 질병에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떼죽음을 당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생존을 담보하는 유전적 다양성의 폭이 매우 축소된다는 의미에서 생명체 복제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사능이나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상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생명체가 만들어져 생물재해(Bio Hazard)를 초래할 수도 있다.[1]

이를 고려한다면 동물의 복제 역시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에 위배될 수 있다. 특히 유전공학을 통해 새로운 종의 동물을 복제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인간 건강에 유익하다 해도, 이는 창조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종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새로운 종을 인간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지위에서 벗어난 월권 행위이다.

기독교 철학자들은 문화의 개현 과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한 사명으로 여긴다. 새로운 종의 동물 복제 인정은 '자연의 개현 과정'을 수용할 경우에나 가능하다. 과연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자연의 관리인인 인간에게 자연의 개현과정 역할까지 주어져 있는 것일까?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유기체적 전체를 이루고 있는 생태계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 변화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지 않을까? 물론 무책임하게 자연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여서는 안되지만, 자연에다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오만한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동물의 복제 역시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1) 임상빈, "생명복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사상」 463호(1997년 7월), 34-35쪽.

비록 인간에게 유익이 되어도, 창조질서에 어긋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인간의 복제는 가족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제까지의 자연적인 종족 번식은 〈양육-출산-임신-수정-성관계-결혼〉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이루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성서 최초의 입양아는 모세이었으나, 그 역시 양육은 친어머니의 손길에 이해 이루어졌다. 오늘날 이 연결고리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양육과 출산의 분리는 입양이나 재혼에 의해 분리되었고, 임신과 양육은 대리모에 의해 분리되고, 성관계와 수정의 관계는 체세포 복제술에 의해 분리되고, 수정과 임신의 관계는 피임법과 체외수정 의술에 의해 분리되고 말았다. 혼외 정사로 인해 결혼과 성관계의 분리는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난 현상이다. 임신과 출산의 관계는 아직 유지되나, 태아 입양이나 인공 자궁이 개발되면, 이마저 분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고수해 온 이 6가지 요소의 자연적인 연결고리가 무너지고 만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과정은 자연적인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 사항이 되고 말았다.

성경은 결혼의 구조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신앙적으로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 복제술은 성 관계를 단지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부터 염색체를 물려받아 새로운 개체가 형성된다는 전통적인 인간 발생관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정 순간에 인간이 된다는 기독교적 입장도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체세포 복제술을 통한 인간의 탄생에는 엄밀한 의미로 수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인간을 복제해 낸다면, 그 복제된 인간을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도 나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갈과

관계를 맺어 이스마엘이란 자녀를 얻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 사례를 복제된 인간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인간 영혼의 물음이 숨겨져있다. 즉, 복제된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으며,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니는가? 야곱과 에서의 쌍태아 이야기는 나오지만, 일란성 쌍태아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란성 쌍태아의 경우 야곱과 에서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영혼을 지닌 서로 다른 개체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일란성 쌍태아에도 적용되는가? 실제로 일란성 쌍태아로 태어난 사람을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영혼을 지닌 개별적 인격체로 인정해 준다. 이를 받아들이면 생식세포 복제술로 태어난 복제된 인간에게도 서로 다른 영혼을 지닌 인격체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인간은 어떠한가? 동일한 유전인자와 동일한 신체 구조를 지닐 경우 영혼도 동일한가? 아니면 영혼은 인간 신체의 구조와 전혀 상관이 없는가?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인간에게도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은 복제되지 않는가? 복제되지 않는다면 정신이나 영혼은 언제 발생하고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복제된다면, 우리는 복제된 인간을 새로운 개체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발생과 영혼의 위치 물음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신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물음 중 하나이다.

이 시대의 화두 돌리와 폴리는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풀기 어려운 조직신학적 문제를 던지며, 우리 기독교인을 향하여서는 신앙과 삶, 그리고 학문이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간 생명을 다루는 과학적 활동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 섭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21세기의 선악과'가 될 수 있다. ⌘